

잇단 참사가 바꾼 풍경 소방훈련 확 달라졌다

광주소방, 제천·밀양화재 참사 계기 현장 대응형으로 변경 시내 주요 건물 야간 불시 훈련...이달까지 모든 요양병원 완료

지난 31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급남로 전일빌딩 앞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 수십대가 모였다. 산소마스크, 헬멧 등 장비를 갖춘 소방대원들은 빌딩 내부로 신속히 진입했고 또다른 대원들은 급남로 1개 차로를 통제해 후 사다리차 운용 공간을 확보했다. 인근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전일빌딩에 큰 일이 난 줄 알고 소방관들에게 “무슨 일이나”며 캐묻기도 했다.

전일빌딩 2층까지 진입한 소방대원들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소방·구조활동을 마친 후 오후 8시30분께 5·18민주광장으로 복귀했다. 광주동부소방서가 실시한 야간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이었다. 119대원들이 실제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움직였기에 시민들은 훈련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

야간불시훈련은 매년 열고 있지만 이번 훈련은 규모를 더 키워 동부뿐 아니라 서부·남부소방, 119 특수구조단이 함께했다.

훈련은 전일빌딩 리모델링 중 건물 일부가 붕괴하고 지상 2층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됐다. 훈련에는 소방공무원 75명, 소방차량 19대가 참여했다. 실제 불이 났을 때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즉시 투입 가능한 규모다. 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5개 소방서는 제천·밀양 화재참사를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한층 현장 대응형으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전 통보하고 훈련했지만, 이번 훈련은 불시에 대상 건물에 출동하는 게 특징이다. 또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들도 참여시키고 있다.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차평동 한 나이트를

람에서 열린 소방훈련도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광주 서부 소방대원들은 클럽 내부에서 불이 났지만 1층 출입문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굴절사다리차와 복식사다리차를 이용, 옥상 등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실제 투입하기도 했다. 또 업소 관계자들에게는 술을 마신 손님들이 많은 나이트클럽 특성을 감안해 화재 초기 진압 중요성을 알려주고 대피로 숙지를 당부했다.

1일 오전 10시 동구 계림동 한 한방병원에는 119대원 30명이 투입됐다. 현지 적응 훈련이었다. 대원들은 입원 환자들이 실제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은 1층까지 이동하는 등 참여했다. 또 병원 직원들에게 불이 나면 연기가 빠지도록 창문 등을 열 것을 주문하는 등 대응 교육과 옥외소화전 등 소방 시설 확보 방안이 강구됐다.

5개 소방서는 2월말까지 지역 모든 요양병원(56곳)에서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출동 경로뿐 아니라 건물 내부 구조를 사전에 파악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대피와 화재 진압이 목적이다. 종사자 소방안전교육과 소방검사도 별도로 추진한다.

또한 10층 이상 고층 건물도 순차적으로 훈련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사무실 근무자들이 불편해 하더라도 재난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관계자는 “미리 훈련인지 알고 움직이면 진정한 의미의 훈련이 아니다”며 “소방 훈련으로 인해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겠지만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대·목포 상가 등 광주·전남 잇단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광주·전남에서 전기 합선 등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일 새벽 5시40분께 목포시 상동 한 상가건물 2층 주점에서 불이 났다. 불은 3층 건물 내부 일부를 태우고 오전 6시10분께 119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이 불로 종업원 A(여·47)씨가 양쪽 발에 2도 화

상을 입고 화재 발생 건물 주변 상가에 있던 여성 B(64)씨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날 밤 10시20분께에는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3호관 건물 1층 비어있는 학과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경보음이 울리며 인근 사무실에 있던 대학연구원들이 즉각 신고하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국 내일부터 다시 한파...광주·전남 '눈'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2일 광주·전남지역 날씨가 일시 풀린 뒤 주말인 3일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은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동진하는 고기압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흐려지고 평년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지만 3일 오후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

다”고 1일 밝혔다.

기상청은 2일 광주·전남은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0도, 최고기온이 3도에서 8도로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3cm 안팎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3일 ‘좋음’ 단계로 예보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1 해질 18:01 달뜨기 20:02 달지기 08:39

눈 오는 밤
구름많은 가운데 밤부터 눈 내리는 곳 있겠다.
◇ 지역별 날씨 (°C)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5/6 | 보성 | 구름많음 | -7/5 |
| 목포 | 구름많음 | -4/4 | 순천 | 구름많고 한때 눈 | -4/7 |
| 여수 | 구름많음 | -2/7 | 영광 | 구름많고 한때 눈 | -7/3 |
| 나주 | 구름많음 | -7/5 | 진도 | 구름많음 | -5/5 |
| 완도 | 구름많음 | -3/6 | 전주 | 구름많음 | -6/4 |
| 구례 | 구름많음 | -8/6 | 군산 | 구름많음 | -6/4 |
| 강진 | 구름많음 | -5/6 | 남원 | 구름많음 | -8/5 |
| 해남 | 구름많음 | -6/4 | 홍산도 | 구름많고 한때 눈 | 0/4 |
| 장성 | 구름많음 | -7/4 |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방향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남부 | 앞바다 | 북~북동 | 0.5~1.0 | 북서~북 | 0.5~2.0 |
| | 안바다 | 북~북동 | 0.5~1.5 | 북서~북 | 1.5~3.0 |
| 남해서부 | 앞바다(동) | 북서~북 | 0.5~1.0 | 서~북서 | 0.5~1.0 |
| | 안바다(서) | 북서~북 | 0.5~1.5 | 북서~북 | 1.0~2.0 |
| | 앞바다(서) | 북서~북 | 1.0~2.0 | 북서~북 | 1.5~2.5 |

◇ 생활지수

- 매우높음: 뇌졸중
- 매우낮음: 감기
- 보통: 미세먼지

◇ 주간 날씨

| 3(토) | 4(일) | 5(월) | 6(화) | 7(수) | 8(목) | 9(금) |
|-------|-------|------|-------|------|------|------|
| ☁ | ☁ | ☁ | ☁ | ☁ | ☁ | ☁ |
| -4/-1 | -7/-1 | -8/0 | -8/-1 | -7/5 | -3/7 | -8/5 |



“검찰내 성폭력 날낱이 밝혀야” 1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회 각계로 번지는 ‘미투’

의원·전직 경찰도 SNS 폭로

한 여성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검찰(發)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일 검찰과 범주계에 따르면 서지연 검사가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범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 글의 여파가 검찰을 넘어 범주계, 사회 각계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동료 남성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6년 전 상임위 연찬회에서 회식 후 의원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한 동료 의원이 춤추며 내 앞에 오더니 바지를 확 벗었다. 밤새 내가 할 수 있는 욕 실컷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근무하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로 이직한 임보영 기자도 ‘#MeToo’ 해시태그와 함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청 재직 당시인 2015년 12월 직속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2647명 정기인사

광주교육청은 오는 3월1일자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원, 교육전문직, 교사 264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일 단행했다. <명단 22면> 시교육청 교육국장에는 교육과학연구원 양정기 원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건국초장영신 교장, 교육과학연구원장에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을 임명했다. 박재성 시교육청 교육장은 일선 학교(전남여교)로 복귀해 중국어를 가르친다.

유·초·중등·특수 신규교사 인사는 임용 결정 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형준기자 khk@kwangju.co.kr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주)별고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교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 볶음용멸치 250g **6,100 원**
- 국물용멸치 200g **4,000 원**
- 볶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 볶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 전미역 250g **3,800 원**
- 해산물세트 **17,000 원**

(주)별고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별고읍 완암길 185-05 Tel. 061)745-9907

- 꼬막볶음교초장 **5,850 원**
- 왕꼬막통조림 간장 **2,250 원**
- 꼬막통조림 소금 **2,700 원**
- 꼬막통조림 간장 **2,700 원**

살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 히팅록 소고기맛 **4,500 원**
- 제품 설명: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 가능합니다. 물을 붓고 졸을 끓여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오모더를 즐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 히팅록 치킨카레맛 **4,5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물기업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살롬산업(주) 대표 김경애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희환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정경태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중앙배

구 매 문 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별고꼬막 061)745-9907
살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ING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www.jnbada.or.kr